

광주세계수영

2

2019년 7월 15일 월요일

스포츠동아 제3124호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14일 21시 현재)						
GWANGJU 2019		금	은	동	합계	
1	중국	5	1	1	7	
2	러시아	2	1	0	3	
3	헝가리	1	0	0	1	
4	미국	0	2	0	2	
5	멕시코	0	1	2	3	
6	스페인	0	1	0	1	
6	영국	0	1	0	1	
6	프랑스	0	1	0	1	
9	대한민국	0	0	1	1	
9	캐나다	0	0	1	1	
9	이탈리아	0	0	1	1	
9	우크라이나	0	0	1	1	
9	일본	0	0	1	1	

중국 신신, 오픈워터 쏜

세계수영선수권 아시아인 최초

신신(23·중국)이 아시아인 최초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오픈워터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신신은 14일 전남 여수엑스포해양공원에서 열린 광주세계수영선수권 오픈워터 여자 10km에서 1시간54분47초20으로 정상에 섰다. 1.666km 코스를 6바퀴 도는 레이스에서 신신은 2015년 러시아 카잔, 2017년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연속 석권한 오를리 물러(프랑스)를 막판에 따돌리고 우승했다. 1991년 호주 퍼스대회에서 오픈워터가 첫 채택된 이후 세계선수권에서 메달을 딴 아시아 선수는 신신이 처음이다. 이 종목에 출격한 임다연(경남체육회)과 정하은(안양시청)은 각각 2시간17분50초90, 2시간19분36초80으로 53위와 55위에 머물렀다. 광주 | 남정현 기자

유럽 강호 헝가리와 역사적인 첫 경기 치른 한국 여자수구팀

“0-64 졌지만 안무서워…첫 골 넣고 말거야”



세계 수준과 격차를 들먹일 필요는 없다. 그들에게도, 지켜보는 이들에게도 위대한 도전이었다. 여자수구대표팀이 14일 광주 남부대 수구경기장에서 열린 헝가리와 경기에서 0-64로 대패했다. 경영선수들로 급조된 현실을 고려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모습만으로도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김민주(오른쪽 뒤)가 골문을 지키며 상대 공격을 막기 위해 양 팔을 치켜들고 있다. 광주 | 뉴시스

개최국 자격 출전 공조차 낮은 선수들 장신들 먹살잡이 발길질에 약전고투 누구도 포기하지 않은 당당한 패배 송에서 “경기는 남았다…나아질 것”

1954년 6월 18일(한국시간) 취리히에서 열린 1954스위스월드컵 조별리그 2조 1차전. 김용식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국가대표팀은 헝가리에 0-9로 대패했다. 결국 한국은 제네바로 장소를 옮겨 열린 터키와 2차전도 0-7 패배, 2전 전패로 첫 월드컵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아픈 기억도 한국 축구의 역사다. 그 고통이 초석이 돼 아시아를 호령하고, ‘전차군단’ 독일도 때려잡는 지금의 대한민국 축구가 탄생할 수 있었다.

2019 국제수영연맹(FINA)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도 누군가의 출발이

있다. 여자수구다. 세계선수권은 1986년, 올림픽은 2000시드니올림픽을 기점으로 정식 종목에 채택된 ‘수중 핸드볼’은 북미와 유럽에서는 큰 인기를 끄는 종목이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낮은 종목이다.

그나마 남자수구는 1986년 서울, 1990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은메달, 동메달을 획득했으나 여자수구대표팀은 사상 처음 결성됐다. 치열한 예선 과정이 필요하나 한국은 개최국 자격으로 출전권을 얻었다.

뿌리가 얹다보니 5월 26일 선발전을 통해 발탁된 13명은 대부분 경영선수 출신. 수구 공을 잡아본 것도 이제 두 달이 채 되지 않는다. 헤엄치며 공을 주고받는 것이 아직 낯설고 위치 선정도 쉽지 않지만 당당한 도전에 나섰다.

14일 광주 남부대 수구경기장. B조에 속한 한국의 1차전 상대는 헝가리였다.

2012년 런던과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4위, 2년 전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에서 5위에 올랐던 강팀. 급조돼 연습경기도 5, 6회에 그친 우리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태극남자들은 대패했다. 8분씩 4쿼터 경기가 끝난 뒤 전광판에는 0-64 스코어가 새겨져 있었다. 71개의 슛이 날아왔다. 1쿼터 12초 만에 첫 실점한 한국은 송에서(18·서울체고)가 1쿼터 4분50초에 첫 슛을 시도하는 등 3개의 슛을 던졌을 뿐이다.

애국가가 울린 역사의 현장에서 환한 미소를 짓던 어린 선수들은 볼 키퍼에 실패해 공격제한시간을 넘기기 일쑤였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패스를 하며 기회를 날리기도 했다. 상대의 영리한 먹살잡이, 허벅지 차기에 몸 곳곳에 멍이 생겼고, 10cm 이상 머리 높이 두 팔을 쭉 뻗어오르면 금세 물속에 가라앉았다.

그러나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다. “앞에서 막아줘”, “왼쪽에서 뒤를 방어해야지” 코치와 동료들의 애절한 외침, “대~한민국”의 함성에 기운을 얻어 버티고 버텨 세 자릿수가 아닌 64실점으로 묶였다.

경기 후에는 울지 않았다. 서로가 “잘했다”고 격려하며 눈물 대신 희망을 노래했다. “첫 슛을 더 강하게 때렸어야 했”던 송에서는 “영상으로나 접한 헝가리와 싸웠다. 그들의 구력은 10년 이상이다. 우리 병아리 팀이다. 아직 대화가 남았다. 점점 나아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훈련 중 코뿔바 부러지고 팔과 손가락을 다친 골키퍼 오희지(23·전남수영연맹)도 “해볼 만 했다. 무섭지 않았다. 테이핑도 일부러 안 했다. 언니로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싫었다. 한 골이라도 뽑고 대회를 마치고 싶다”며 단단한 의지를 전했다. 광주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Lotto 6/45 867 회 당첨번호 (추첨일 : 2019년 7월 13일)

1등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14	17	19	22	24	40	41
1등 총 당첨금 1,919,668,800원						

*1등 총 당첨금 1,919,668,800원 (추첨일 기준)이며, 당첨 개입수가 복수인 경우 균등 배분됩니다. 총 당첨금은 총 판매액의 50% 이상입니다.

등위 및 당첨개입 수	당첨금(원)	당첨금 내역
1등 6개 숫자 일치	5	3,933,755,250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
2등 5개 숫자 일치 + 2등 보너스 일치	57	57,511,042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3등 5개 숫자 일치	2,175	1,507,186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4등 4개 숫자 일치	109,516	50,000 원
5등 3개 숫자 일치	1,820,552	5,000 원

*당첨 당첨금은 1개월의 당첨금에 기속합니다. (세금 공제 전)

· 동행복권 콜센터 : 지역번호 1588-6450 · 인터넷 당첨번호 안내 : www.dhlottery.co.kr
당첨금 지급기간 :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까지

복권 구입시
유의 사항

· 복권은 1만원 및 10만원까지 구입가능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은 복권을 구매하거나 당첨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지난날 복권 구매는 중독의 해를 막기할 수 있습니다. 동행복권센터 080-800-0501 www.clear.dhlottery.co.kr



코넬 마르쿨레스쿠 국제수영연맹(FINA) 사무총장과 홀리오 마글리오네 FINA 회장, 이용섭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장(광주광역시청), 조영택 조직위 사무총장(왼쪽부터)이 14일 남부대학교 국제수영장 메인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마글리오네 회장은 “이번 대회는 최고의 유산을 남길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광주 | 뉴시스

마글리오네 FINA 회장 “모든 게 만족…최고의 대회로 남을 것”

“모든 부분이 만족스럽다. 최고의 유산을 남길 것이다.”

2019 국제수영연맹(FINA)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현장을 찾은 홀리오 마글리오네 FINA 회장이 엄지를 치켜세웠다. 성공적인 대회에 대한 확신의 표현이다. 그는 14일 광주 남부대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대회조직위원회 이용섭 위원장(광주광역시청)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의 환대가 FINA 가족들에게 집과 같은 편안함을 주고 있다. 대회 준비와 운영에 만족한다. 한국의 열정과 지원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광주수영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12일 힘차게 개

막했다. 지구촌 194개국, 선수 2537명이 펼칠 선의의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경기장 곳곳에서는 뜨거운 함성이 메아리친다. 당초 목표보다 높은 입장권 판매와 열기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된다.

레거시 사업 측면에서도 이번 대회는 큰 의미를 갖는다. 국제 스포츠대회 개최는 엄청난 적자가 불가피하나 이번 대회는 ‘저 비용·고 효율’을 지향했다. 과도한 부채를 피하기 위해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했다.

“사후 경기시설 활용문제 등으로 인한 재정적인 부담이 증가되지 않는다. 대회가 끝나면 실효성을 가진 유산사업을 추진해 ‘수영도시 광주’의 전기를 열겠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약속이다. 수영진흥센터

설립, 수영선수권 및 마스터스대회 개최 등이 대표적이다.

마글리오네 회장 역시 “최상의 축제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닦였다. 한국의 젊은이들에게도 좋은 유산이 될 것”이라며 호평했다.

한편 북한의 불참에 대해 이 위원장은 “아쉽고 안타까우며 유감스럽다. 북한 참가를 통한 한반도 평화의지를 확인시킬 수 없게 됐다”고 씁쓸해했고, 마글리오네 회장은 “정치와 스포츠는 별개다. 북한이 더 높은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광주 | 남정현 기자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